

# “일 안하는 국회의원 막는게 세계적 추세”

민주연구원, 국회 파행 관련 제도개혁 방안 보고서

“한국당 국회 거부에 민심 들끓어… 의회주의 부정”  
세비삭감·의원제명·소환제 도입 등 각국 제도 소개  
“세비삭감 도입할 필요… 국민소환제 당론 채택해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6일 “세비 삭감, 상임위원 자격 박탈, 심지어 의원직 박탈 같은 제도적 중징계까지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막고자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강제 장치 도입을 제안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국회 장기파행 막을 제도개혁 방안 필요’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극단적 대결적 정치문화를 감안하면 반복되는 국회파행을 막을 보다 강력하고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일하는 국회를 강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박혁·강병익·김영재 연구위원이 발간한 이번 보고서에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고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국회 파행을 막는 세계 각국의 제도적 장치를 열거해 국회 정상화 합의를 거부한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 민주연구원은 보고서 모두에서부터 “한국당이 경제와 민생을 외면하고 국회를 거부한 지 오늘로 82일째다. 민심은 들끓고 있다”며 “아담이 정치적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시적 장외투쟁을 선택적으로 구사할 수는 있으나 최근처럼 한 정당의 극단적 무기한 장외투쟁으로 국회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일은 의회 민주주의의 토대를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섭단체간 합의를 2시간 만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헌법의 중요한 가치인 의회주의를 부정했다”며 “국민 다수가 바라는 국회등원을 거부하는 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법안, 추경예산 등의 처리 지연으로 전체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하는 국민 대표자 의무를 방기했다”며 “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보이듯 18차례 했다. 역대 국회법안을

처리율은 사상 최저다. 국회를 너사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연구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상임위원 자격 박탈 ▲의원 제명 ▲교섭단체 경상보조금 삭감 ▲국회소환제도 도입 등 세계 각국의 제도를 열거하며 “우리 헌법도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해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따라서 더욱 적극적인 제도로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관련해 “우리도 국회법에 국회의원 회의출석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의사일정을 ‘보이콧’할 경우 세비를 삭감하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 국회는 결석한 회의일수 만큼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활동비는 3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수당, 임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합친 전체 금액에서 삭감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의 무능, 무책임, 부패 등이 있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전에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직접 해임하는 것”이라며 “각 당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일하는 국회, 절제하고 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전북도와 중국 강소성의 자매결연 25주년 교류행사를 위해 중국 방문에 나선 도의회 대표단이 26일 양주시에 있는 군산 새만금문화학당을 방문했다. 도의회 대표단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북문화·관광 자원, 새만금 알리는 교두보’

도의회 대표단, 中 양주시 ‘군산 새만금 문화학당’ 방문

전북도와 중국 강소성의 자매결연 25주년 교류행사를 위해 중국 방문에 나선 도의회 대표단이 26일 양주시에 있는 군산새만금문화학당을 방문했다.

송성환 도의장 등 전북도의회 대표단 7명은 이날 강소성 양주시 한광명 양묘박물관에 소재한 군산 새만금문화학당을 방문해 한국어 교육에 기반한 한국문화를 배우는 수강생 하동씨와 최숙산 한국어 교사 등 문화학당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 대표단은 자매우호도시인 군산시와 양주시가 지난 5월부터 함께 운영하고 있는 군산새만금 문화학당이 전북을 알리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어 배우려는 양주시민들에게 전북의 문화와 관광자원 그리고 새만금 사업을 알리도록 교류협력 관계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는 기대감을 밝혔다.

송성환 도의장은 양주시 의사 관공실 왕옥금 주임 등에게 “전북도와 중국 강소성은 자매결연한 이후 교류와 인적교류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며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한국어와 한국문화와 사람은 물론 전북 방문 등으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5월 문을 연 군산새만금문화학당은 올 연말까지 40명의 수강생들에게 매주 토요일마다 한글교육과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북도의회대표단은 25일 오후 양주시 영빈관에서 세 정 의 양주시 당서기겸 인민대표대회 주임과 판 티엔연 인대부주임 등을 만나 서로관심분야의 사업들이 보다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양주시 인대가 공동노력

하기로 했다.

송성환 도의장은 세 정 의 당서기 겸 인대주임에게 “양주는 첫 방문이지만 양주의 군산새만금문화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시민들에게 전라북도와 군산, 새만금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니 더욱 친근하게 느껴진다”며 “전북과 양주시의 좋은 인연이 불적·인적교류 확대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송성환 도의장, 한원수 부의장, 김대중 운영위원장,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 최찬욱 환경복지위원장, 강용구 농산업경제위원장, 김이재 외교활동운영협의회장 등 도의회 대표단 7명은 지난 25일부터 4박5일동안 중국 강소성 인민대표대회주임과 강소성장 간담회 및 ‘전북도와 강소성 자매결연 25주년 교류한마당’ 행사 참관, 전북도 중국 사무소 방문 등의 공식일정을 소화한다. /김진성 기자

### 민주 도당 노인위원회 발대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노인위원회가 26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북도 노인회관에서 열린 이번 발대식에는 전영배 전북도당 노인위원장을 비롯해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노인위원 25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북도당 노인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의 개선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점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설명과 향후 노인들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 고령화 사회에서 지방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소개와 설명 등이 병행됐다. /김진성 기자

### 민주 이춘석 의원, ‘대한민국 의정대상’ 선정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지방자치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헌신해 온 국회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의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는 이춘석 의원이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민의 생활 개선을 위해 입법 및 정책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석 의원은 전북도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새만금정책포럼의 대표로서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련 법안들을 발의, 통과시키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 서는가 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차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손꼽히는 홀로그램 산업을 전라북도에 유치해내는 등 차세대 신산업들을 중심으로 한 첨단성장동력으로 잠재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 의원은 “국회가 정해진 상황에서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히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열심히 분발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진성 기자

### 문승우·이명연 도의원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전북도의회 문승우(군산), 이명연(전주11) 의원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의정대상·지방자치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JIC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의정대상 지방자치행정대상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시상식에는 전국 3600여명의 의원 중에서 선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

문승우 의원은 제11대 도의회 의원으로서 민생관련 조례 제·개정 및 건의안 발의를 비롯해 지역주민들의 뜻을 도정에 반영하는 한편 지방의회 발전 등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명연 의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도민 복지증진에 헌신하고 지방의회 선진화와 지방자치 실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



정반야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영예를 안았다. /김진성 기자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